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즐함울

(준비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 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52 호 / 발행일 : 2003년 9월 21일

주일예배 영어통역서비스 시작



해외선교부, 몽골탄기선교를 다녀오다(관련기사 2면)

앞으로 매주일 예배의 영어통역서비스가 실시된다. 지난 8월중에 자원자를 모집하여 결성된 「주님의교회 통역봉사팀」은 지도에 정현희 목사, 단장에 이병식 장로, 그리고 김영숙 권사를 팀장으로 이희숙 권사, 남창희, 유중열, 박원석, 이춘실 집사 등 모두

16명의 자원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9월 첫째 주일에 시험방송을 마친 봉사팀은 9월 둘째 주일부터 매주 2부, 3부예배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교통역서비스의 대상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외국인과 통역을 원하는 교인이며, 예배시 본당 4층으

로 와서 개인별 수신기와 이어폰을 받아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반납하면 된다.

또한 방송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음성과 영문이 게재되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아울러 현재는 영어로만 제공되지만 장차 일본어나 중국어 등도 계획하고 있다. 9월 통역봉사자로는, 7일 주일은 한진희, 14일 주일은 김현성, 21일 주일 2부 김하연, 3부 홍성민, 28일 주일은 최수진C 자매가 봉사하기로 하였다.

유소년 축구클럽 시작해

9월 7일 오후 1시, 1층 소예배실에 100여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주님의교회 교육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건강한 놀이문화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복음전파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유소년 축구클럽을 시작. 교육위원회가 지원하고 2002 월드컵 기술위원장이었던 이용수 집사를 선두로 110여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12주간의 축구 여정을 출발했다.

지난 봄, 유소년 축구팀 결성에 대한 문동학 목사의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그저 다른 교회의 상황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러던 중 이용수 집사를 만나 상황은 변하여 이 집사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배려로 축구클럽을 결성하기로 하고 그 시작을 올 가을로 잡게 된 것이었다. 기대와 염려함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축구클럽은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와 부모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 9월 13일 현재 100명의 초등학생, 14명의 중등학생, 그리고 20명의

자원봉사자와 8명의 코칭스텝이 함께하는 거대한 모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나라는 문이 계속되었고, 실제로 이 일로 교회의 문을 처음으로 들어온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기분좋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지시기를 소망하며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는 기대하지 않지만 저들에게 던져주는 축구공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수만 있다면 머지않아 믿지 않는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씨가 심겨지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놀이문화를 만들어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혹시 주일날 축구화를 신고 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됨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 김현령 전도사(교육부)

헌혈로 사랑의 실천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하나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남아도는 피라면 어떨까? 하나님이 주신 몸은 하루 50ml의 새로운 피를 생산하고 3~4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피로 대체한다. 우리 몸의 혈액량은 여자는 체중의 7%, 남자는 체중의 8%를 차지하는데 몸무게가 여자는 45kg 이상, 남자는 50kg 이상 되면 두 달에 1회씩 320ml~400ml까지 헌혈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혈액 여유분으로 10% 더 주셨다. 그런데 2002년 혈액을 수입한 외화가 3,00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0억 6천 만원, 혈액량은 283,156리터이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박애와 봉사정신이 기독교의 사명일진대 1,200만 기독교인 중 3.3%인 40만명이 헌혈한다면 아까운 외화를 절약할 뿐 아니라 혈액수입국이란 국가적 수치를 면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 설 수 있다.

헌혈을 하면 우리 몸의 각종 질병인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을 검진해주니 무료 건강검진도 되고 헌혈증을 받아두었다가 필요한 이웃에게 주어 긴요하게 사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시지 않겠는가?

의료선교부에서는 9월 21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 앞 학교 정문 헌혈차량에서 헌혈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더훈련 첫 날 풍경

2004년 봄학기부터 평신도 교사와 소그룹 리더로 봉사할 일꾼을 세우기 위한 리더훈련이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3층 초등부실에서 첫 모임을 가짐으로 시작되었다. 이 날 리더훈련은 목요일 오전반과 주일반을 포함하여 모두 3개 반 중 첫 번째로 시작된 반이었다. 49명의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지원한 화요일반은 김성관 목사와 박의일 전도사가 담당하여 섬기게 된다.

찬양과 기도의 시간 후 약 두 시간에 걸쳐 계속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리더훈련의 목적과 훈련과정, 그리고 어떤 자세로 리더훈련에 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리더훈련은 20주간, 약 6개월에 걸쳐 '제자훈련 터다지기' (201과정)와 '제자훈련 뿌리내리기' (202과정), '후원자가이드' (301과정)와 '소그룹인도

법과 귀납적 성경연구' (302과정) 등의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각 과정은 일대일 양육 시스템과 소그룹 환경, 그리고 강의 등의 방법론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훈련생들은 매일 경건의 일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매주 두 구절의 성경구절을 암송하게 되며, 그 주간에 배울 과를 예습하고 소책자 및 부교재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게 된다. 또한 과정 중에 신구약 성경을 1회 통독하게 된다. 49명의 사람들은 다시 12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며 그 소그룹 안에서 4명씩 셀을 구성한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교재배부와 임원선출이 있었다. 화요일반 반장으로는 임주청 피택 안수집사, 회계로는 하광엽 집사와 박재숙 집사가 수고하게 되었다. 리더훈련은 목요일반 30명, 주일반 70명 등 모두 150여명의 교우들이 신청하였다.

몽골선교보고 첫 번째 이야기 (4회연재)

1. 선교지로 떠나기 전 - 「요나의 갈등 속에서」

처음 몽골선교를 권유받은 순간 “예, 뒤에서 기도하지요”라고 선뜻 순종하고 나서 나는 문화선교라는데 재주 없음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선교는 말씀이 미치지 않은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일(missionary work)임을 아는데 나는 가까운 친지에게조차 전도한 적이 없다는 자격지심에서 자꾸 망설여졌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몽골에 때가 찼는지, 어떻게 올란바타르대학 총장이 한국인일 수 있는지, 총장이신 윤순재 선교사는 어떤 분인지, 문화선교는 어떻게 하는 선교인지 등등 많은 것이 궁금했다. 더욱이 믿음의 분량도, 사람됨됨이도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로서 파송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염려되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일행 18명 중 많은 분이 이러한 염려 가운데 이번 선교여행을 결단했을 것이다.

7월 24일(목)

해외선교부 실무행정팀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안을 가지고 상견례 겸 세 부계획 확정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이후 8월 21일 출발 전날까지 한 달 동안 매일 찬양과 울동, 팬터마임 연

습, 그리고 주님의교회 첫 문화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 준비모임에 소홀했던 나는 다시 한 번 망설임에 흔들렸다.

선교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 1교구 수련회(8월 17일~19일) 조별모임에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 이 곳에서 하는 기도 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대하 7:13~15)하신 말씀을 붙들고 조원들과 묵상과 생각나누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눈물의 통성 기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북한이 95, 96, 97년 고난의 행군을 하는 동안 인구의 10%인 200여만 명이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갔고, 그 여파로 공식 숫자 170여만 명이 탈북하여 별목노동자, 꽃제비 등으로 중국 등을 배회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기아로 건강과 뇌손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핵위기와 당사자인 남한이 빠진 3자회담과 곧 있을 북경 6자회담, 정몽헌 회장의

자살, 점증하는 민생과 안보위기, 촛불시위와 한총련의 미군부대내 기습시위와 성조기 방화훼손 및 U대회에서 미·북한 경기에 보인 일방적 북한응원 등의 반미감정과 9·11사태 및 이라크전쟁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이민 및 조기유학에 따르는 비정상 가정의 사회문제, 바닥을 모르는 경제하락,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노사갈등, 당대 당 및 당내 갈등, 총체적 부정에서 오는 절망과 상대적 상실감, 비전 제시를 못하는 참여정권 6개월의 혼미 등 나라를 버리고 떠나고 싶어할 정도의 이 땅의 어둠과 북한문제와 통일을 놓고, 지금은 우리가 이 곳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나는 이번 선교여행을 함께 준비하던 김성관 목사에게 심경을 토로하고 요나의 갈등 속에서 길 떠나게 되었다.

출발 전날인 8월 20일 수요일 새벽 시간 전에 마지막 점검 총연습과 라이브 연주자 조정현 집사가 준비해온 저녁으로 떡을 함께 떼는 자리에서 담임목사께 출발인사를 드리며 축복기도와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 예배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찬양으로 전교인에게 출발인사를 드렸고, ‘파송의 찬양’ 화답과 ‘가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말씀 증거하고 돌아오라’는 문동학 목사의 격려의 말씀과 기도예 우리의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희숙 권사(1-7구역)

임직피택자모임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



지난 9월 7일(주일) 오후 1시, 5층 찬양연습실에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의 모임이 있었다. 장로 피택자 10명, 안수집사 피택자 14명, 권사 피택자 12명 그리고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찬양이 끝난 후 담임목사의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하므로 이에 맞는 지도자적 자세 개발에 힘쓰자는 내용이었다. 특히 평신도 사역을 강조하였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신도이고 사역자이므로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권고하였다. 투표는 사람의 손길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역하기를 부탁하였다.

말씀 후 피택자들에 대한 간단한 일정안내가 있었고 곧 시작될 ‘양육체계’와 ‘리더훈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다. 이어 파트별 피택자의 황적인 연결과 소식을 위해 총무 선출을 한 후 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 허진 기자

허혁 성도의 주일 주방봉사일기 ① (2회연재)



아직도 신앙의 ‘s’ 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함글함글’에 올릴 글을 쓰는 것이 속으론 좀 부담되지만 국수를 드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쓴다.

언젠가 주말에 동생 집에서 온 가족이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다. 가끔씩 서로 교대로 하는 일상사였기에 특별한 생각을 갖게 할만한 일은 없었다. 평상시와 같이 주일 새벽 다섯 시까지 놀고 들어와 잠시 잠든 후 일곱 시에 일어나 주섬주섬 집에 갈 채비하는 나에게 동생이 한 마디했다. “그 교회 참 대단한 교회인가 보다. 형같이 교회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이 잠도 못 잤는데 국수 삶으러 가야 한다고 일어나는 걸 보면...” 동부간선도로의 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오는 길에 문득 내가 남들이 보기엔, 적어도 동생이 보기엔 상전벽해에 비견될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들었다.

주님의교회에 처음 나간 것은 정확히 새 천년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이다. 그전에 몇 번 다니면서 나름대로 주님의교회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던 집사람이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다. 예배가 끝나갈 즈음 “서로 인사하시지요”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주변의 사람들을 되돌아보았다. 바로 뒤에 언젠 있었느냐는 듯 미소를 지으며 서있던 점잖은 노부부와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두 아들로 이뤄진 가족을 보는 순간 이 모습이 우리 가족의 앞으로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만큼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러곤 서로 진심으로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 후 예민한 편이었던 집사람이 구역예배 참석하는 날과 주일에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진정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덕분에 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집으로 이사한 어느 날 구역예배 겸 이사축복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게 되었고 김병모 목사님과 집사람을 막내라 부르며 챙겨주고 이끌어주시던 고마운 구역 분들을 뵈게 되면서 넘치도록 많은 것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던 기독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채의식이 강하게 들었고 때마침 국수 삶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김 목사님의 말씀에 젊고 튼튼한 내가 할 일이다 싶어 국수 삶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주방일을 포함한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배

움을 얻었다. 대부분이 연세가 드신 분들로 힘에 부치심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일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나까지도 행복해졌다. 소리 없이 일하시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시는 많은 이름 모르는 분들, 드러나지 않는 훨씬 많은 분들이 참 신앙을 묵묵히 실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 허혁 성도

태풍재해복구 자원봉사자 모집

구제부는 9월 24일(수)~27일(토), 경남 마산시 교현동으로 자원봉사를 떠난다. 주일에 안내 및 헌혈 신청데스크에서 자원봉사 신

청을 받고, 24일 교회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승합차량의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교회 사무실 ☎ 416-5181로 문의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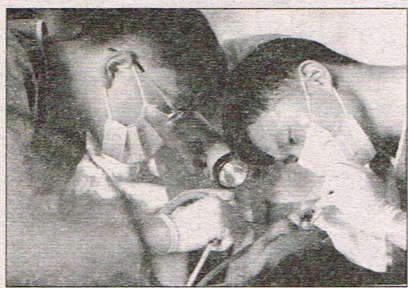
2003 서울 국제외식산업 전시회/컨퍼런스

이영남A 권사(1-3구역)가 조직원장으로 10월 1일부터 3일에 걸쳐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있다. 외식, 급식, 레스토랑, 전통

음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매일 경품추첨, 세미나, 특별 이벤트 등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초 청장은 입구에서 받을 수 있다.

태국 푸켓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주님을 영접한 바다집시족과 함께 한 기도의 밤



7월 29일, 2교구 수련회가 열리는 광림세미나하우스에 아침이 밝아왔다. 아침 산책시간이지만 그 싱그러운 숲속 길을 다 걸어보지 못하고 목사님과 교우님들을 작별하고 서둘러 서울로 향하였다. 그리고 바로 매연과 소음이 가득한 서울의 어느 시장 속을 헤매고 있었다. 내일 떠나는 의료선교단의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7월 30일, 의료선교부 최상용 부장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도착하니 아침 6시였다. 벌써 정현희 목사님, 송국환 집사님 그리고 박태웅 집사님이 나와서 차에 짐 싣는 것을 도와주셨다. 작년 캄보디아 의료선교단의 3분의 1 규모로 사람도, 짐도 단출하였다.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약사 3명 그리고 보조와 관리 3명으로 모두 13명이였다. 정현희 목사님은 인천공항까지 동행하여 '아픈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셨다.

인천에서 태국 방콕까지 5시간, 그리고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1시간 15분, 푸켓에 도착하니 현지 시간 5시 20분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의약품들을 통관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태국 정부가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 약품 통관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최상용 집사님이 세관원에게 약품 리스트를 보여주고 일부 약품을 꺼내어 설명하여도 막무가내로 듣지 않았다. 나중에는 홍경환 목사님과 그곳 한인교회장님까지 들어와 설명을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기를 무려 두 시간, 결국 우리는 치과 기구를 비롯한 몇 개의 가방만을 가지고 공항을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날 바로 진료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간에 최상용 집사님과 목사님은 의약품 통관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고, 우리는 예정된 반찰롱 초등학교로 가서 강당에 진료소를 차렸다. 강당이라고 하지만 일반 교실 두 개 정도로 작았다. 입구 접수대를 지나 소아과와 내과가 나란히 자리잡고, 치과와 한방과가 마주하였으며, 그 끝에 약국을 꾸몄다. 책상을 이용해 진료대와 조제대를 만들었고 캄보디아에서처럼 이발소 의자로 치과를 차렸다.

전날 장비가 무사히 통관된 치과에서는 치료용 모터 소리가 웅웅 울리고, 어린이 환자가 물려들어 제법 활기를 띠고 있었다. 고대 구로병원의 정성욱, 황성택 선생님은 세계 공통어인 '아!'를 연속 발음하면서 어린이들 치료에 맘을 쏟았다. 소아과 김학원 선생님은 청진기로 진찰하면서 한편 어린이들의 머릿니도 찾아내어 처방하였다. 마침 최상용 집사님이 머릿니에 효과있는 연고와 안약 그리고 영양제를 공항에서 통관시켜 가지고 오셔서 약사님들이 안도하였다. 전문약도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나라여서 그런대로 처방전을

소화할 수 있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이곳 태국에서 소외되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바다집시' 마을을 방문하였다. 유랑 민족으로 말레이반도를 떠돌던 이들이 200여년 전 이곳 라와이에 정착하였으나 소수 민족으로 차별받고 있었다. 대부분 미신숭배자이거나 모슬렘으로 열악한 환경과 영양부족으로 머리털마저 탈색될 정도였다. 이들 중 주님을 영접하고 마을회관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아린이라는 전도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돈이 없어 전깃불도 끊어진 빈민가 마루에 촛불 네 자루를 켜서 우리 일행을 맞이하였다. 후덥지근한 습기에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는 바로 이들 바다집시의 생활처럼 답답하기만 하였다. 이곳 현지 전도사인 나라삭의 기도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열심이 가슴에 사무치고 있었다.

원래 우리는 이곳 주민들을 방문하여 진료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보건소에서 진료허가를 잡지 못해 취소해 버렸다. 이번 9월에 이곳 푸켓에서 에이펙(APEC)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빈민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꺼려하였던 것이다.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국민성으로 인하여 태국에서 맛보는 두 번째 좌절이었다.

둘째날 아침에도 최상용 집사님은 김성범 선생님과 함께 약품 통관을 위해 공항으로 나가고, 우리는 진료소로 향했다. 진료소에는 매일 교양선생님이 간식으로 열대 과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료 선교단을 위로하였다. 경희대의 조성훈, 손정원 한방과 선생님이 침술로 요통 환자들을 치료하여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도 마을과 그 일행이 이 곳을 찾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강도와 광야의 위험에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매 맞음과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시달리면서 이 곳에 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 그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사도 바울을 돌로 쳤던, 세상적인 부와 판단과 계산들은 한 줌의 돌부스러기로 스러지고 있다. 나는 나에게 다가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지금도 나의 삶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계산으로 짐지워져 있는가? 앞으로도 몇 번을 더 실수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탕진해야 철이 들까?

버스에 다시 올라앉아도 가볍지 않은 가슴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사과 과수원 밭들과 옥색 빛으로 아름다운 에르기구 호수를 보면서 많이도 밝아진다. 예루살렘의 감람산과 갈릴리 호수가 몹시도 그림다. / 하회주 집사(4-4구역)

서울로 돌아오는 날이 마침 주일날이어서 홍경환 목사님의 푸켓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폭우 속에도 한국인 여행자들이 찾아와 함께 조출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특히 이날 고대구로병원의 이호순 약사가 예배 후에 최 집사님의 권유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통관 문제로 시름 많았던 최 집사님은 서울에서 준비한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모처럼 환한 모습이었다. 우리 모두는 이 약사를 향해 둘러앉아 복음송을 불렀다.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 밖에는 주님의 사랑처럼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 모든 이의 가슴 속까지 축축히 적시고 있었다. / 오종세 집사

신임 교역자 소개

■초등부 문화곤 전도사■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초등부를 섬기게 된 문화곤 전도사입니다. 전 평신도 선교사로 중동과 영국에서 무슬림에게 선교하다가 부족함을 깨닫고 장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귀국한 후 지난 2년간 동안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부서를 섬겼습니다.



초등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내일의 교회를 이끌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초등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복음에 기초하여 이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인격을 가르치며 초등부와 학교와 가정은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교육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아부 정재경 전도사■

저는 아이들과 만나면 늘 손가락 인사로 반가움을 나눕니다. 양손의 손가락을 짝씩 펴고 친구들의 궁둥이를 사정없이 비비듯이 흔들며 외치지요. '살롱'이라고... 저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졸업반 즈음에 믿을만한 한 선배의 사역자리를 물려받으며 시작된 유아사역이 올해로 이제 6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제 11개월이 다 되어가는 제 아이를 양육하며 참으로 여러 모양의 돌봄의 손길이 아이들에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영아부에서도 아이들마다의 필요가 다르지만 엄마 같이 사랑받고 따뜻한 아주 친한 친구 같은 섬김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지순례시리즈 9

바울의 1차 전도요충지 '비시디아 안디옥'

지하도시 데린쿠유를 돌아보고 꼬냐(사도행전의 '이코니온')의 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오전 4시경에 일어나 오전 5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6시경 꼬냐를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다. 광대한 터키 땅을 돌아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강행군을 하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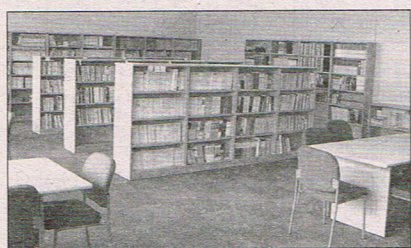
꼬냐를 출발한지 꼬박 3시간 만에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 가는 도중에 광대한 타우루스 산맥이 보인다. 지금은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가는 이 길을 사도 바울 일행은 맨발로 걸어갔으리라. 허름한 안내소에서 입장권을 받아 들어간 그 곳은 터키 어느 기독교 유적지나 마찬가지로 쓸쓸하고 적막한 느낌을 준다. 돌아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면서 로마 시대의 돌모퉁이 언저리에 앉아 성경을 열어보았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 이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행 13:13~50)

잠시 후 터가 넓고 시야가 탁 트인 유적지 사이를 거닐면서 역사학적 설명을 들었다. 고대 히타이트 시대 이후부터 도시가 들어섰던 이 곳에 셀류키드족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세웠다. 산적을 일삼고 난폭했던, 타우루스 산맥의 고지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였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이 곳은 군사 도로상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고 로마의 세력이 확장되어감에 따라 더욱 번창해갔다.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곳이 어디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돌길을 사도 바울과 일행이 걸었을 것이다. 그 길을 걸으면서 몇 번이고 자문했다. 사

9월 28일, 교회도서관 개관을 서두르며



작년에 『좋은책읽기모임』에 참여하여 작은 영성을 나누며 우리 주님의교회에 대한 작은 소망이 있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긴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몇 분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사모한 기도는 올해 초 5층 도서관 공간이 확정되면서 응답을 받았다.

담임목사와 담당목사가 새로 오셨고, 교회의 사역 분위기가 도서관에 관심을 쏟게 된 것은 3월 중순경부터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선 인터넷으로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아울러 담당 분야의 전문가들인 몇몇 분들의 의견을 참작하면서 공간 배치에 대한 구상을 해나갔다. 그 간에 도서관이나 북카페의 기능을 갖느냐의 여부, 그리고 서적 구입과 공간 배치 등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많은 의견 교류가 있었는데 5월 하순경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틀을 잡게 되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우리 교회 도서관은 '사업 공간'이 아니라 '영성이 깃든 골방'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도서관 규정을 만들면서 교회의 적은 예산으로 가장 소박하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하기로 했고,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기보다는 최소한의 물품들을 설치하여 향후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기대하며 여백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도서 구입 비용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우선 성도들의 도서 기부를 받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고 귀중한 자료들을 하나씩 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월 초순부터 주보와 함줄함을 광고를 통해 성도들로부터 책을 기증 받기 시작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도서들을 기부해 주었다. 특히, 무명으로 많은 책들을 기부한 손길에 감사한다. 기부를 받은 도서들을 분류하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힘이 들었다. 돈이 많아서 주제에 맞추어 새책을 많이 구입해서 서가에 배치하면 가장 쉬운데 하나님의 일은 역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 분류 기준과 배치,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땀과 애씀이 있었다. 특히 무작정 여러 책을 배치하기보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위해 여백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책을 검토하고 분류하고 배치하기 위해서 도서관 팀원들이 주중과 주말 내내 정성을 쏟았다. 그리고 중복되거나 배치를 유보한 책들은 주신 정성을 생각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더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곳으로 모두 기부를 했다.

9월 중순 현재, 아직 도서를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분류되어서 서가에 배치된 신앙서적이 약 1,800권, 일반 교양도서가 약 1,800권, 그리고 아동도서가 약 700권 정도가 되었다. 아직도 책이 기부가 되고 있고 분류 작업이 매주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이 최소한으로 시작되었다. 비용, 인원, 역량... 모두가 가난했다. 앞으로 갖추고 구입하고 정리할 것이 한 둘이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참에 작은 중간 결산을 하려는 마음이 도서관 팀원들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통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일에 '골골방'을 공개하기로 목사님과 장로님과 의견을 모았다.

부디 성도들이 성도들의 손길로 이루어진 이 작은 공간을 돌아보고 아끼고 나누며 여전히 많은 여백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음도.

/ 도서관장 하화주 집사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예배' '예식' '기도회'는 구별하며 사용해야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이다. 그래서 예배와 각종 기도회로 한 주에 여러 차례 모인다. 주일 낮을 비롯하여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밤, 그리고 매일 새벽 등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세계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모임에 예배라는 명칭을 붙여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돌, 회갑, 추모 등의 모임에도 예배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와 예식과 기도회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코 인간을 위한 모임이거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배와 예식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돌, 회갑, 추모, 입학, 졸업, 결혼, 입당, 임직, 교회 창립 등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예식으로 표현하고, 예배와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목적으로 모이는 수요일 저녁 모임과 금요일 철야 혹은 심야 모임 그리고 매일 새벽 모임 등은 수요일기도회, 금요일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 교단 총회를 통과한 「표준예식서」의 정신을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일 예배, 주일저녁찬양예배, 주일학교예배, 수요일기도회, 철야기도회, 경건회(각종 회의 시작 전)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정기당회 결과

지난 8월 30일에 있었던 정기당회의 결과를 교우들께 알려드립니다.

목회보고와 안건토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는, 구역장 훈련이 지난 9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지하 찬양연습실에서 있으며, 대상은 구역장이다. 장로 피택자 부부 교육도 9월부터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있다.

10월 22일부터 24일, 미국 시카고 Willow Creek Church에서 열리는 WCA Conference : Prevailing Church Conference에 저희 교회 관계자 약간명이 참석하기로 한다.

또한 테헤란로에 접한 교회의 이점을 살려 '직장인을 위한 목요일기도회'를 예수전도단과 공동사역으로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소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그간 수고해오신 김경신 장로는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안식년으로 장로 시무를 잠시 쉬게 된다.

평양교회 남시찰회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일신교회에서 있다(교역자와 장로 8명 참석).

내년도 각 위원회별 사역일정 및 예산심의를 위하여 당회원세미나가 10월 10일(금)~11일(토), 1박 2일의 일정으로 있다.

교회소식

▶ 새로 마련된 양육체계에 따라 마련된 양육과목이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2학기에 개설된 양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양육과목	시간	장소	담당
리더훈련반	리더훈련주일반	오후 1시 30분	3층 초등부실	김원재 목사 김성관 목사
	리더훈련화요일반	오후 7시 30분		
	리더훈련목요일반	오전 10시		
주일	영어성경공부반	오후 1시 30분	1층 제3집회실	김영숙 권사
화	206 시편 권별성서연구	오전 10시 30분	지하 찬양연습실	정희성 목사
	206 에베소서 권별성서연구	오전 10시 30분	3층 초등부실	김병모 목사
	305 중보기도학교	오전 10시 30분	5층 찬양연습실	정현희 목사
목	206 세인트베드로인물성서연구	오전 10시 30분	5층 찬양연습실	이상훈 목사
금	204 성경파노라마	오전 10시 30분	5층 찬양연습실	이창현 목사

▶ 영아부에서 아기침대를 필요로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기침대가 있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 혹은 영아부 김향순 집사(011-9193-0540)에게 연락바란다.

▶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로 영아부 이영란 전도사 후임에 정재경 전도사와 초등부 황병기 전도사 후임에 문희곤 전도사가 새로 섬기게 되었다.

▶ 지난 9월 3일 수요일예배 후 있었던 임시제직회에서 임지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되신 이재철 목사를 본교회 전도 목사 자격으로 홍성사에 파송하는 안건이 결의되었다. 총회헌법에 의하면 목사는 임지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무임목사명부에서 삭제된다.

▶ 안수집사 모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풍요의 계절에 새집행부가 들어서고나서 안수집사 회기 첫 모임을 갖고자 한다. 일시는 9월 21일(오늘) 오후 1시이며, 장소는 5층 찬양연습실에서 모인다. 순서는 예배와 신임임원 소개, 활동계획 토의, 그리고 다과 및 친교로 이루어진다. 안수집사 모두가 참여하여 소중한 모임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

▶ 실버찬양단 연습

9월부터 실버찬양단이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 오후 1시부터 5층 찬양연습실에서 다시 연습을 시작한다. 자세한 문의는 신정웅 집사, 엄주청 안수집사에게 하면 된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 기사제보안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줄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핸드폰 : 011-466-4736
▶ 이메일 : chhylee@korea.com